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2월 4일(주일) 제1183호



온누리복지재단, 서울시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

2월부터 쪽방촌, 노숙자 섬기는 '쪽방상담소' 수탁 운영
청소년 쉼터 '군포하나로' 7월 입주 목표로 재건축 실시

온누리복지재단에 겹경사가 났다. 지난 1월 29일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을 받았다. 2월부터는 서울로부터 수탁 받아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를 운영한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7월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실시한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우수 복지법인 인증을 받았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온누리복지재단을 포함한 6개 법인(살레시오수녀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이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인철 본부장(서울시 복지본부)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에 부응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남기철 대표(서울시 복지재단)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사회복지법인들이 더

욱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온누리복지재단은 2018년 2월부터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를 수탁 받아 운영한다. 앞으로 온누리복지재단은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일대 쪽방촌 70개 건물(방 1,251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12명을 5년 동안(2023년 1월 23일까지) 섬긴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7월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준



비하고 있다. 노후된 쉼터의 재건축으로 안전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지역사회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관련 기사 7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남수단 난민 위한
'희망학교 짓기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희망의 학교 짓기' 캠페인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우간다 북부 남수단 난민촌에 학교를 지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난민촌에는 8천여 명의 난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그 중에서 1,400여 명이 학생들인데 학교가 없어서 NGO 더멋진세상이 지원해 준 천막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희망의 학교 짓기 캠페인'에는 벽돌 100장(2만원), 학용품 세트 1개(2만원)를 후원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 계좌이체, 네이버 기부포털 해피빈을 이용해서 참여하면 된다.

abetterworld.or.kr
하나은행 573-910009-09905
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8

차세대 패션(Passion)집회 '그리스도의 사람들'

1차 2월 23~25일, 2차 2월 25~27일

청소년을 위한 예배축제 '패션(Passion)'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8 패션집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주제로 충청북도 괴산군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개최된다. 1차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빙고, 대전, 인천, 남양주, 안산M센터, 2차는 2

월 25일부터 27일까지 양재, 도곡, 수원, 부천, 강동, 평택, 양지, 서산, 태안 소속 청소년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차세대 각 부서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월 4일까지 5만원, 2월 5일부터 당일까지는 5만 5천원이다. 이번 패션집회에서는 여는예배와

닫는 예배, 2번의 저녁집회, 토크쇼, 파워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의를 노회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윤길중 목사(양재 열린새신자예배), 박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등이 한다. 토크쇼는 '학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주제로 진행되고, 파워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순서다.

차세대사역본부가 개최하는 패션집회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장(場)이다. 문의: 02-3215-3523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작은 통일을 이뤄가는 친구들이 있다. 이승자 사감(63세, 강남A공동체)과 탈북 대학생 하은혜 자매(가명, 28세)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한누리학사에서 작은 통일을 이뤄가고 있다. 한누리학사는 탈북민을 섬기고 있는 한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다. 남자 기숙사(종로구)와 여자 기숙사(강남구)에 탈북민 대학생 8명(남자 3명, 여자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승자 사감과 하은혜 자매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은혜 자매는 엄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사감님이 좋고, 이승자 사감은 자식처럼 어여쁜 자매가 사랑스럽다. 그들이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9일 여자 한누리학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승자 사감과 하은혜 자매를 만났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작은 통일을 이뤄가는 친구들

엄마처럼 따뜻한 사감과 자식처럼 어여쁜 탈북민 대학생



작은 통일을 이뤄가는 이승자 사감(오른쪽)과 하은혜 자매(왼쪽).

“엄마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어요.”

이승자 사감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는 하은혜 자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기숙사에 입소하기도 전부터 자신을 위해 기도해왔다는 사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정말 너무 행복했다. 기숙사에 들어온 날에도 그 따뜻함을 느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이뤄가는 작은 통일이 시작되었다.

오해보다 이해가 먼저

남한과 북한은 분명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은혜 자매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다. 그녀는 15살에 친언니와 함께 탈북했다. 엄마가 먼저 중국으로 갔고, 중국에서 엄마가 보낸 브로커의 도움으로 탈북했다. 3년 만에 중국에서 엄마와 재회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다. 외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양복점에서 일하기 위해 엄마와 다시 헤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6년을 떨어져 살았다.

그녀는 양복점 외에도 골프장과 병원 등지에서도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녀를 좋게 본 병원장이 한국에 가는데 그녀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외국에 갈 수 있는 신분증이 없었다. 신분증이 없다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홀대받아야 했고,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다. 이 난관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신분증을 만드는 것뿐

이었다. 그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언니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가까스로 한국에 왔다.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때가 고요한 새벽이었어요.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가까운데 몇 만 리 돌아 와야 한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생활과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마음의 거리조차 멀게 느껴졌다. 서로의 다름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한번은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통일은 희망적인가’라는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갔는데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통일은 불가능하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그녀가 한누리학사에 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승자 사감과 만나고 나서 통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다. 이승자 사감에게는 벽이 느껴지지 않았다. 역시 오해보다 이해가 먼저다.

더 열심히, 더 따뜻하게

하은혜 자매는 2016년 10월 한누리학사에 들어왔다. 집이 경기도 남양주인데 학교까지 통학하기가 너무 버거웠기 때문이다. 학교에 한 번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렸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터에서 여자 기숙사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바로 지

원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부터 학교 다니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어 좋았다. 그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승자 사감과 만났다. 이 사감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았다.

“사감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저희 밥 차려주는 일을 거른 적이 없으세요. 귀찮아하시지도 않고요. 날마다 정성껏 차려주시는 밥상을 보면서 엄마의 포근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이승자 사감이 한누리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 대학생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모른다. 같은 날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에 똑같은 반찬을 내는 일도 없다. 국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끼니만큼은 절대 굶기지 말자는 것이 이 사감의 원칙이다.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식에게는 귀한 것만 먹이고 싶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예요. 탈북민들은 남한 음식을 많이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싶어요.”

이 사감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은 하은혜 자매의 신앙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배우고 있다.

“사감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지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화가 나실 때도 있으실 텐데 한 번도 저희를 혼내신 적이 없어요.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승자 사감이 탈북민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사랑과 기도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사감은 늘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고 있다.

“탈북민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정리정돈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지적하는 것보다 제가 가서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스스로 정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잔소리를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따뜻하게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20년 기도의 응답

이승자 사감이 탈북민들을 한없이 품고 사랑을 나누는 이유가 또 있다. 그녀도 20년 넘게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설움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그 누구보다 타국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아픈지를 잘 알고 있다. 탈북민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녀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탈북민의 간증이었다.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한국으로 넘어올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강을 건너다 죽기도 한다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녀는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탈북민들의 안전과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을 쏟았다. 그 기도를 20년 동안이나 했다.

“기도만 했지 제가 탈북민들을 직접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누리학사 사감으로 섬기면서 탈북민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쌓아두신 것 같아요.”

이승자 사감은 오늘도 탈북민들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하고 있다.

“사감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들에게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승자 사감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통일의 시작입니다. 통일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강단



권혁빈 목사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압박나루사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사건을 가리켜 창세기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이 왜 어려운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나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천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장관일 수도 있는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피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꾀, 전략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고, 심지어는 형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싶으셨는데 야곱의 삶의 방식으로는 진정으로 축복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온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조금만 더 가면, 더 소유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만 더 가면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가면 죽기 때문에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신 목적이 있고 메시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신체를 상하게 하시면서까지 개입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치신 하나님

요나서 1장에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다 죽게 생긴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살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그 순간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사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환도뼈가 어긋나자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전에는 못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압박나루는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싶으신데 지금 야곱의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수아 5장과 6장에도 이와 비슷한 의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을 대항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네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전력으로 싸우는 것’임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도 명령하

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됨을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는지 다시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년 11월 27일을 유월절처럼 지키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겪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힘과 능력과 전략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27절).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시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29~30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거듭났느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든 아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의 말씀을 체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입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야곱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변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고민했던 것들이 정말 작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하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해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저도 다리를 다치고 한동안 절뚝거렸습니다. 그리고 야곱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그 의미와 묵상의 결론은 희망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희망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그것을 희망이라고 보았습니다. 하 목사님도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 위기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 상황 자체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고, 이 시대를 밝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증거를 두실 것입니다. 그 희망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고, 멈출 때는 멈추고, 돌아설 때는 돌아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신년
기획

2018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다문화(多文化)와 친구 되기

다문화는 배려, 관심, 사랑, 나눔 필요한 모든 이웃 총칭
교회가 앞장서서 독거노인, 미혼모, 장애인, 이주민 섬겨야



2018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다문화(多文化)와 친구 되기’다. 다문화는 누군가의 배려, 관심, 사랑, 나눔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사는 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너무 나서 역겨웠어요. 그래도 눈 딱 감고 그분을 안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찾아갔다가 예수 만난 사람의 간증이다. 이 간증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문화와 친구 되기’는 예수님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보통 ‘다문화’라는 단어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근로자 등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나 여러 문화가 혼용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그 의미와 영역이 훨씬 넓다. 다문화는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을 가리킨다. 노인, 여성,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이 그 대상이다.

■ 독거노인 교회보다 좋은 이웃 없다

우리 주변에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가 386만7천 세대다. 그 중에서 129만4천(33.5%) 가구가 독거노

인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독거노인들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거노인의 절반은 70대(47.5%)이며 80대(26.5%)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비교적 젊은노인 층에 속하는 65~69세(26%)보다 많다. 이처럼 독거노인들이 증가하면서 고독사(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응급상황 대처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가 일정 기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관리실에서 연락을 취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만큼 독거노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공동체나 순에서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 섬기면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독거노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회에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공동체 야유회도 함께 갈 수 있다. 거기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까지 알려주면 이보다 좋은 이웃이 없다.

■ 미혼모 기댈 수 있도록 어깨 빌려주기

한해 평균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200명이고, 낙태아는 16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태중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 기르는 용기 있는 여성들을 우리는 미혼모라고 부른다. 그 용기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미혼모들이 몹시 외롭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다. 사람들은 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느냐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미혼모와 아이들의 삶이 비극일까? 그렇지 않다. 미혼모들은 “혼자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절대 비극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여기에 교회가 미혼모들이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면 어떨까? 미혼모들이 더 큰 용기를 내고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약 24만 명의 미혼모가 있다. 미혼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과 ‘자립’이다. 교회가 미혼모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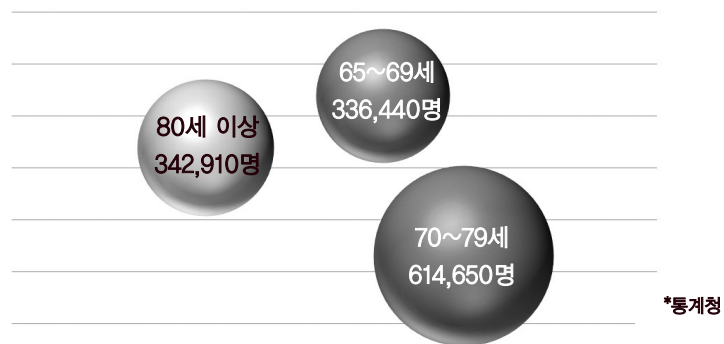
먼저 전국 각지에 있는 ‘미혼모센터’와 연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금전적인 후원은 물론이고, 아이를 낳아 양육해 본 경험이 있는 선배엄마라면 누구든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다. 전문적인 직업교육 및 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100일 사진 찍어주기 등의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 장애인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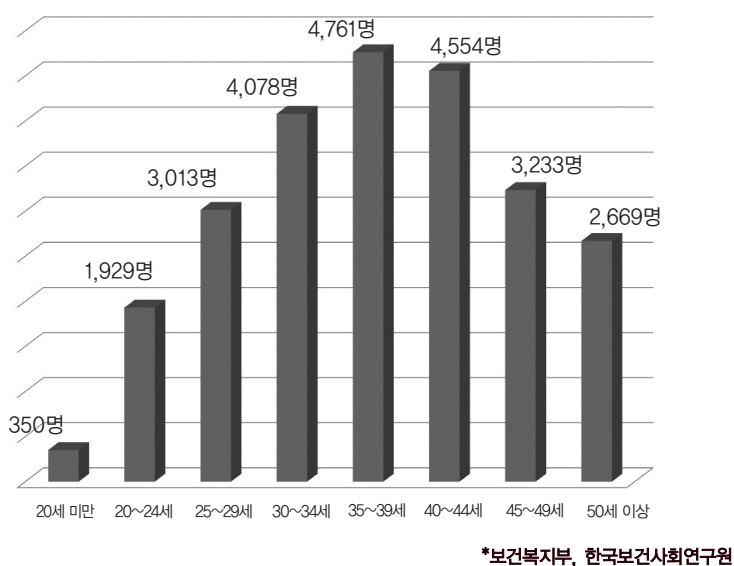
장애인의 반대말은 ‘예비장애인’이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는 선천적(4.7%), 출생 과정(1.3%), 후천적 질환(56.2%), 후천적 사고(32.7%), 원인불명(5.1%) 순으로 발생했다.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이 약 89%에 달했다. 따라서 장애인과 예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이 살기 힘든 곳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전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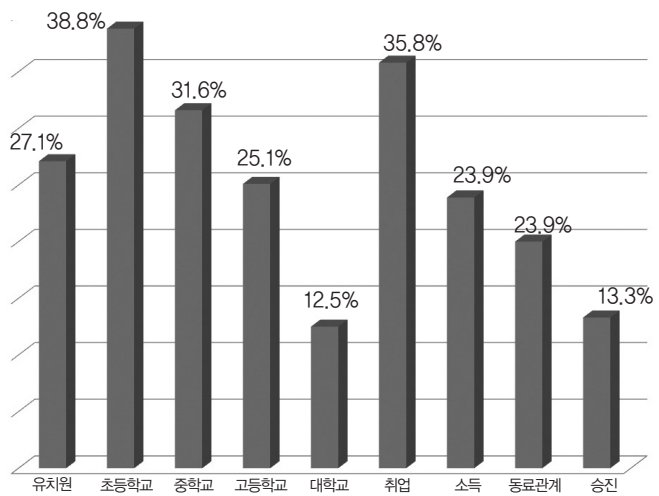
독거노인 연령별 분류



미혼모 연령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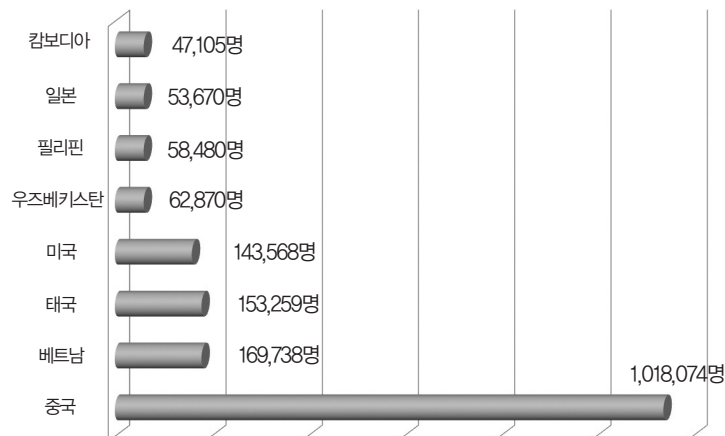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중복허용)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민 국가별 분류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하다. 지난해 서울 모 지역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하자 몇몇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대한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장애인과 친구가 되는 것은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실천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장애인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 드려보면 그들이 누구보다 사랑과 정이 많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또 장애인들과 대화할 때는 기다려주고, 경청해주고, 되묻고, 다시 말해주는 것이 좋다. 함께 길을 걸을 때는 속도를 맞춰야 한다. 우리의 조그마한 배려가 장애인들을 활짝 웃게 할 수 있다.

■ 이주민 더 가까이 더 소중하게

이주민들과 친구가 되려면 가장 먼저 그들을 더 가까이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연령과 국가별 특성에 따라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좋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이 218만 명이다. 19세 이하 15만7천 명(7%), 20~29세 57만3천 명(26%), 40~49세 35만7천 명(16%), 50~59세 31만 명(14%), 60세 이상 22만 명(7%)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100만 명(47%), 베트남 16만9천 명(8%), 태국 15만3천 명(7%), 미국 14만3천 명(7%), 우즈베키스탄 6만2천 명(3%), 필리핀 5만8천 명(3%), 일본 5만3천 명(2%), 캄보디아 4만7천 명(2%), 몽골 4만5천 명(2%) 순이다.

이 국가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친근하고 익숙하다. 매년 여름 아웃리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주민들을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는 이유이다.

이주민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주민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된다. 의사소통은 몸짓 발짓 섞어가며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쓰이는 국가를 선정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나라의 특성과 문화를 공부하면 된다.

연령별 관심사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도 좋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학업과 진학, 청년들은 연애, 결혼, 직장, 장년들은 자녀양육, 어르신들은 건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관심사에 대한 최신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좋다.

이주민들에게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비자문제다. 우리나라는 이주민들에게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 'F-1(방문동거)', 'F-3(동반)' 등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비자가 곧 생명이라 해도 무방하다. 오죽하면 비자연장 및 신청을 돕는 것이 이주민들에게 가장 쉽고, 빠르고,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일까. 그렇다고 당장 각종 비자의 특징과 신청조건들을 외우는 것은 무리다. 이주민들이 비자연장 및 신청을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해주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미혼모, 장애인, 이주민 외에도 관심과 배려,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이 너무 많다. 그 이웃들은 저 멀리 있지 않고 내 주변에 있다.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한 이웃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물, 공기, 바람, 햇빛이 되어주자. 아름다운 천국의 꽃들이 만발할 것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다문화 이해를 돕는 책과 영화

“겨우 5점이 낮을 뿐이네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발달장애가 있는 검프의 이야기다. 검프는 아이큐가 75이고, 걷는 것도 불편하다. 또래 아이들에게 놀고 괴롭힘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프와 검프의 어머니는 편견과 차별에 굴하지 않는다.

검프의 엄마는 검프를 일반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런 검프의 어머니에게 교장은 “적어도 아이큐가 80

은 넘어야 우리 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겨우 5점이 낮을 뿐이네요.”

검프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다. 검프는 지능이 조금 낮을 뿐이지 일반인과 다를 게 없다. 사랑도 하고, 군대도 가고, 운동도 한다. 일반인보다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다. 지능과 사회성은 낮지만 기억, 암산, 퍼즐,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검프는 대학에도 진학하고 풋볼 스타로 거듭난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군대에서는 상사로부터 “너는 아이큐가 160이 넘는 천재”라는 칭찬도 듣는다. 또 검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만난 덕분에 큰 회사의 사장이 된다. 첫 사랑 제니와 아들도 낳는다. 아이큐 75의 포레스트 검프가 그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를 저능아로 보지 않고 진면목을 알아준 이웃들이 아닐까.

“미혼모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영화 ‘과속스캔들’은 미혼모와 그 가족의 이야기다. 한때 잘나갔던 가수 남수현(역 차태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딸과 손자가 생겼다. 남수현의 딸 황제인(역 박보영)과 손자 황기동(역 왕석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 딸 황제인은 미혼모 손에 자란 미혼모다.

황제인의 어머니가 남수현에게 흠이 될까 알리지 않고 홀로 아이를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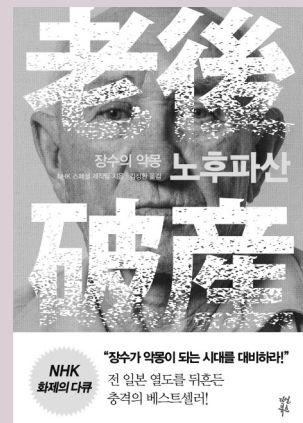
보통 미혼모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황제인의 꿈은 가수이다. 남수현은 딸이 가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딸과 손자에게 평생 숨죽이며 살아 달라고 부탁하지만 딸은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미혼모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아빠와 다룬 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왔다. 모자는 한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한다. 하루 종일 일해도 어린 아들 유지원 보내는 것조차 힘들만큼 궁궁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남수현이 딸의 손을 들어준다. 결국 딸은 가수가 되는 꿈을 이루고 더 큰 행복도 찾는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화다.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노인들의 현 주소이다. 이 시대 노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노력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이 되고 만 것이다.

책 〈노후파산〉은 독거노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본 NHK 방송사에서 제작한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글로 엮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 노인들의 이야기는 타산지석이다. 〈노후파산〉에서는 일본의 노인들이 왜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조명하고 있다. 〈노후파산〉을 읽는 것만으로도 독거노인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절대 아니다. 노인 빈곤률과 노인 자살율이 OECD 1위이다. 가진 것이 없어서 황혼에

특집 엔젤트리 그 후

“그 선물은 감동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엔젤트리 선물 받은 이웃들에게 샘솟은 기쁨

엔젤트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했다. 그 첫 번째 주인공들은 경기도 파주시 여성인권센터 ‘쉬고(Shego)’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여성 45명이다.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사람들의 시선조차 피해야 했던 그녀들에게 엔젤트리는 감동 그 자체였다. 두 번째 주인공(사)참좋은친구들에게 엔젤트리는 기쁨 그 자체였다. 작은 선물 하나가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엔젤트리를 만나고 나서 치유, 회복, 기쁨, 새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2017년 엔젤트리 행사에서 한 아이가 사연을 뽑고 있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엔젤트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엔젤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참여인원이 2016년(1,640건)보다 약 1.4배나 증가했다. 사연이 무려 2,272건이나 접수되었고 그 많은 사연이 모두 후원자와 연결됐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관심과 사랑이 꼭 필요한 여성인권센터 ‘쉬고(Shego)’에도 전달됐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여성인권센터 ‘쉬고’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이희에 소장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가 많이 없는 현실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6.25 한국전쟁 이후 파주시 곳곳에 미군부대가 주둔했는데 그때 미군을 상대로 한 성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지촌이 생겨났어요.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생계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파주시에 주둔했던 미군부대가 후방으로 철수했다. 그 이후에는 몇몇 성매매 업소가 남아서 내국인들을 상대로 율락을 이어가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모른다.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어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치다 붙잡히면 자리를 비운 만큼 돈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도

A씨가 10대일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재혼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엄마는 재혼한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A씨를 온전히 챙겨주지 못했다. 결국 함께 살기가 버거워진 A씨는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처음에는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오래가지 못했다. 아

빠까지 재혼하면서 생계비가 끊겼다. 중학교를 중퇴한 10대 소녀가 혼자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때 조건만남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활이 곤궁한 어린 소녀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성매매의 길로 들어섰다.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자들이 좋을 리 없었다. 반복되는 성폭행을 피하려고 성매매 업체에 들어갔다. 자신의 몸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지도 못했다.

“성매매 업체에서 알게 된 사람이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사기였어요.”

성매매 업소에서 벌린 돈 1억이 한 순간에 날아갔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이자를 40%나 내야 했다.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나올 수 없는 노예가 되어버렸다. 지난해에는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에 적발됐다. 그 일이 A씨에게는 기회였다. 성매매 처벌의 일환으로 ‘성매매 근절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서 ‘쉬고’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소망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금 바리스타를 꿈꾸고 있다.

새 삶을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10년 넘게 성매매 업소에서만 일하다 보니 바리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다. 바리스타 학원에 들고 다닐 마땅한 가방도 없었다. 그때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였다. 엔젤트리를 소개하는 전화였는데 그때 ‘쉬고’ 직원이 A씨와 또 다른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사연을 적어 보냈다. 며칠 후 A씨 앞으로 검은색 가방 하나가 도착했다. 엔젤트리를 통해서 성탄선물이 전달된 것이다. A씨에게 가방을 전해준 ‘쉬고’ 직원은 당시 A씨가 한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더라고요. 학원에 들고 다닐 마땅한 가방이 없었는데 너무 좋은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게 좋아하더라고요.”

A씨에게 그 가방은 그냥 가방이 아니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녀만을 위한 응원이었다. A씨뿐만이 아니다. 엔젤트리를 통해 목도리와 장갑을 선물 받은 다른 성매매 피해 여성 B씨는 “돈이 없어서 목도리와 장갑을 사지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다”며 “이 선물이 저에게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기지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에게는 쌀과 생필품이 전달됐다. 이희에 소장은 엔젤트리가 ‘쉬고’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엔젤트리는 그냥 선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겁니다.”

후원: 농협 215044-55-000183

(사)에코젠더부실 여성인권센터 쉬고

정말 고맙습니다

신석출 장로
(참좋은친구들 이사장)

다. 그 따뜻한 섬김을 잊지 않고 온누리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할렐루야!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2018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사)참좋은친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물질과 기도로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섬김을 잊지 않고 온누리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의 넘치는 사랑과 섬김 덕분에 지금도 이곳에서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사)참좋은친구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숙자입니다. 노숙한 지 3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주면 왜 나한테 관심을 갖는지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면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한 엔젤트리는 (사)참

좋은친구들을 찾는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촌 이웃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은 신발이 없어서 한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 어르신께 이번 엔젤트리를 통해 털이 달린 신발을 선물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꼭 필요했던 물건인데 따뜻하기까지 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손가락 마디가 아파서 테이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통증이 더 심해져서 늘 걱정이었는데 이번 겨울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엔젤트리를 통해 할머니께 장갑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할머니 자신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가방이 없어서 종이가방에 물건을 넣어 다니던 분이 엔젤트리를 통해 큰 가방을 선물 받고 어린이처럼만 기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70여 명이 넘는 이웃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큰 기쁨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사)참좋은친구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됩니다. 올 한 해도 나눔과 도움의 손길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감동

더 높이 비상(飛上)하는 ‘온누리복지재단’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수탁, 청소년쉼터 재건축



온누리복지재단이 2월부터 수탁하게 된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시설 중 하나인 동자희망나눔센터(왼쪽)와 하나로쉼터 조감도(오른쪽).



온누리복지재단이 더 높이 비상한다. 서울시가 실시한 '2017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되었고,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도 수탁받았다. 청소년 쉼터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하나로쉼터)는 재건축 준비가 한창이다.

서울시로부터 우수사회복지법인 인증

지난 1월 29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결과보고회'에서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이 뜻 깊은 이유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개 분야(필수 이행분야, 역량인증분야), 4개 영역(운영안정성, 운영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9개 지표, 69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우수법인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 이행지표(49개 항목) 전체를 통과해야 하고, 역량인증지표에서 총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적 공신력, 행정처분 유무(인권유린, 임금 비리, 부정수급, 회계질서 문란 등)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적격성을 결정했을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였다.

이로써 온누리복지재단은 대내외적으로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을 인정받고, 서울시의 지원(법인 상담, 종사자 교육, 지도 및 감독 대상 제외 등)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증 유효기

간은 2022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수탁

온누리복지재단은 이달부터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를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한다. 2023년 1월 23일까지 5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이로써 온누리복지재단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에 이어 노숙인까지 섬기게 되면서 지경이 확대되었다. 함께 섬기고, 나누는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 더불어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게 됐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를 수탁 받은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 7년 여 동안 남대문5가 공동체를 섬긴 양재 금호사역팀, 서초B공동

체, 여호수아공동체의 헌신으로 맺은 열매이기도 하다.

온누리복지재단이 수탁 받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는 쪽방 1,251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12명을 섬기고 있다. 상담실, 새꿈나눔터(주민편의시설), 동자희망나눔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온누리복지재단은 상담실과 나눔센터를 운영하며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조익성 집사(서초B공동체)는 "온누리교회와 온누리복지재단, 정부가 연합하면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며 "노숙인들이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함께 섬기자"고 제안했다.

하나로쉼터 재건축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가 올해 7월말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에 들어간다. 하나로쉼터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쉼터, 위탁형 대안학교 등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 및 상담, 복지, 교육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이옥자 소장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날마다 언제 이사 가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새 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온누리복지재단 02-793-965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정호욱 목사
(온누리 복지재단
상임이사)

건강한 지도자의 비전은 '수직적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수직적 비전을 품은 건강한 리더였던 고 하용조 목사 비전의 성취의 결과물이다. 1999년 보건복지부 인가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으로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현재 2곳의 자체 시설(하나로쉼터, 온누리요양센터)과 4곳(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번동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의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도 수탁 받아 운영한다.

2011년 2대 담임목사로 세워진 이재훈 목사

에 이르러서는 온누리복지재단의 사역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교회 내에 머물던 사역들이 복지재단과 협력해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된 것이다. 장애인사역(사랑채, 은사랑함장단, 모자이크플러스), 재소자사역(교도소 및 구치소), 한터공동체(탈북자 숙소) 등에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 회계, 후원금 관리, 외부공모사업지원 등의 하드웨어적인 도움을 온누리복지재단이 주고 있다. 또한 이달부터는 사회선교부와 협력해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를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역이 추가되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건강하고 건실한 운영은 정부부처와 성도님들께 인정받고 있다.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의 법인으로 확인 받았고, 하나로쉼터 재건축이 결정되자 지난해 9월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비전헌금 등으로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다.

감사한 일이 또 있다. 2017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사에서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서를 받았다.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은 사회적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시설로 명예로운 일이다. 온누리복지재단 가족들은 앞으로도 우수 사회복지법인 인증을 받은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성심을 다해 섬길 것을 약속한다.

온누리복지재단은 IMF 사태가 발생했던 1998년에 노숙자 9명을 섬긴 것이 인정되어 허가 받았지만, 당시 실패를 경험했던 나는 노숙자사역은 특별한 관심과 사랑,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굳게 믿었다. 3년 전부터 온누리교회가 노숙자를 섬기는 산마루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게 되었을 때도 나의 이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직접적인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년 만에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를 수탁하는 일을 주셨다. 이렇게 수탁에 이르기까

지는 7년 동안 섬겼던 분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나의 지난 교만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두렵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 각양각색의 은사자들이 모일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의 유익(고전 12:7)을 이루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번에 수탁 받은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는 그들을 위한 상담, 보건의료 지원, 기초생활 지원, 자활자립 지원, 정서지원, 주거 지원, 주거안전관리 홍보 및 주민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통해 희망마을이 만들어지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다. 복지재단이 연결고리(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곳, 그 황금어장에서 주님의 날에 책망 받을 것 없이 견고히 서는(고전 1:8) 훈련을 하길 바란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3

‘과거’라는 울무에서 벗어나기

상처 꺼내고, 의미 발견하고, 악을 선으로

사람들은 질병을 예방하고, 신체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영성을 진단하고 체크해야 한다. 건강한 영성을 소유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기훈 목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보내왔다.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나는 목회자로서 평생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한 영성을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삶 자체가 불행하다. 왜 그럴까? 성장과정에서 받은 영향 때문에 오늘 행복하지 못하다. 과거의 경험이 울무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울무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과거가 울무가 되어 오늘이 행복하지 않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성장과정에서 받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과거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거 끄집어내서 해결하기

첫째, 어떤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는지 떠올려야 한다. 어릴 때 집안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생각해 보자.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는 집, 다툼이 많은 집,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온 식구들을 괴롭혀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집 등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는지 아니면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격려와 인정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잘 돌아켜 생각해 보자.

둘째, 성장과정에서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부정적 혹은 긍정적 표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돈이 최고야”, “일류대학 가야 돼”, “학벌이 제일 중요해” 등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랐을 수도 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이 삶에 영향을 끼친다.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도 영향이 있다. 그때의 기억들이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풍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조부모, 부모님, 나, 그리고 자녀세대에게 이어지고 있는 가풍이 있는지 찾아보기를 바란다. 성경에 보면 부정



적인 가풍의 영향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리를 빼앗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사람을 속였다. 그러다 진짜 아내를 빼앗길 뻔 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 아담은 이삭을 속인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인 척 했다. 속임이 아브라함 가문에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마다 가풍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 긍정적인 것도 대물림된다. 부모가 화목하고,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집안의 자녀들은 결혼해서도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지옥 같은 가정도, 천국 같은 가정도 대물림된다.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쓴 뿌리와 상처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누군가에게 말하기를 싫어한다. 자신의 편파에 흠이 나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우습게 볼 것 같은 염려와 자존심 때문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과거를 은폐하려 한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이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한다. 놀림과 억압을 만들어서 삶을 부자유하게 만든다. 따라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영향들을 살펴보고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울무에 걸린 채 억눌러 살 것인가 아니면 울무를 깨뜨리고 자유하며 살 것인가. 결국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어 살지 않았다

울무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은 10명의 형들로부터 질시를 받았고, 죽임 당할 뻔했다. 결국 노예로 팔려갔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제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형들을 저주하고, 복수의 칼을 갈며, 마음에 증오와 상처를 짊어지

고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복수의 날만 기다리며 제대로 웃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자신의 울무를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50장 15장부터 21절에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형들의 모습이 나온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시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창 50:16~17).

불안해진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가며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그런 형들을 보며 야곱은 울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19~20).

요셉은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 형들에게 분노하지도, 벌을 주거나 보복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요셉은 울무에 얽매어 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다. 자신이 겪은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은 상처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었다.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두 번씩이나 보여주신 비전을 자신의 고난과 연결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했다. 노예로 전락해버린 상황에서 일반인이었다면 분명

시험 들고 넘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집트 총리로 등극해서도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연결지어 생각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은 단순하고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

과거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석은 달리할 수 있다.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과거의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뀔 수 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어서 놀려있고 억압되어 오늘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상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평생 울무에 갇혀 살아야 한다.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글이 있다. 미국에서 호스피스사역을 오랫동안 해 온 한 전문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너무 적더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겪었던 사건에 대한 죄책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죄책감과 원망을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는 평생을 죄책감과 원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그것이 울무가 되어 일생을 얽매어 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한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과거의 울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영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면 험한 인생이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 불행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 때문이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울무와 상처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한다.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울무를 찾고, 그것에 숨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그리고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다. 내 안에 울무가 없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진다.

새해에 보면 좋은 영화 '라이온 킹(Lion King)'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미국 속담이 있다. 고사성어 ‘부전자전(父傳子傳)’과 같은 의미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의미로 부모와 자식은 닮는다는 말을 비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생령)가 되게 하시고, 에덴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인간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

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의 권위를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창조이야기를 마주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다. 바로 ‘라이온 킹(Lion King)’이다. 영화 ‘라이온 킹’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이 배경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사자 ‘무파사’는 사바나를 다스리는 왕이다. 그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이 넘치는 왕이다. 그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차 왕위를 이을 아들 ‘심바’가 태어난다. 심바는 많은 이들의 기대와 사랑을 한 몸에 받지만 아버지 무파사는 그가 진정한 동물세계의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자연의 섭리를 인정하고 거스르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차 동물세계의 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다. 아들에게 권한을 잘 사용할 때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나 아들 심바는 아직 철 모르는 어린사자일 뿐이다.

동물세계를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다스리고 지배해야 진정한 왕이라고 여기는 ‘스카(Scar)’는 심바의 삼촌이다.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상처와 피해의식, 형 무파사에 대한 진노로 가득 차 있다. 스카는 조카 심바에게 “너는 왕이니 무엇이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로 충동질 한다. 그 말에 심바는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던 ‘코끼리 무덤’에 가게 되고 하이에나 떼를 만나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 순간 아버지 무파사가 심바를 직접 구해주며 훈계한다.

어느 날 스카는 하이에나들과 무파사를 죽일 계락을 세운다. 그 중심에 아무것도 모르는 심바가 있다. 심바를 곤경 가운데 처해놓고 무파사를 부른다. 무파사는 심바를 살려놓고 자신은 황소 떼에 밟혀 죽는다. 심바는 그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거친 들뜬으로 도망간다.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미어캣 티몬과 흙돼지 품바를 만나게 된다. 심바는 그들에게 “지난 일들을 잊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위로 받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다. 심바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없어도 하늘에 떠 있는 조상 왕들이 너를 지켜보며 함께 하고 있다”고 했던 아버지의 말이 기억났다. 그때부터 심바는 사바나를 다스릴 왕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심바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뜻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는 스카와 같은 속삭임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가 왕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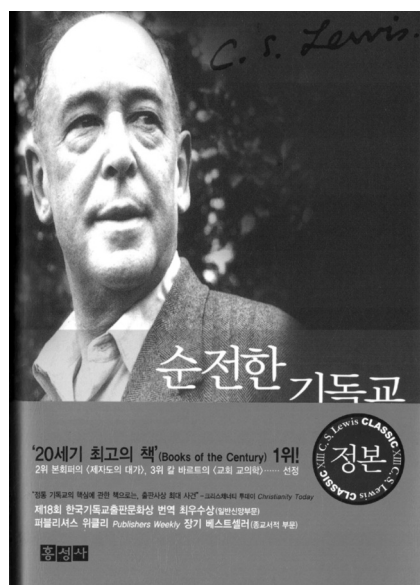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의 소위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벧전 2:9).

우리가 유약한 심바와 같을 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왕의 권위를 약속하시고 준 비시켜 가신다. 하나님은 절대 왕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며 왕의 영광을 온 누리에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다.



문창원 전도사
(인천 온누리교회)

새해에 읽으면 좋은 도서 <순전한 기독교>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학문도, 이론도, 종교도 기독교만큼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된 적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진리의 존재를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는 인간본성의 법칙처럼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존재라는 사실

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접근한다.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 품는 의구심 중 하나가 죄의 시초다. 이는 창조에 대한 의문과 연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인간본성의 법칙과 자연법칙에 기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피력한다.

이 책은 서두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불의와 정의의 대립관계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물질적 우주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힘을 소개한다. 이 책의 특징은 인간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변증서로서의 놀라운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인간의 행동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강조한다. 아무리 옳은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반드시 내면의 성찰을 통해 바른 동기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덕목에 대한 개념과 행동 규범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펼쳐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계시를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님을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변화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자신이 가진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지만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자아를 버리고 새사람으로의 변형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은 죄와 용서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의 사랑과 생명이다.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으로 들어온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진리가 많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지식과 지성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으라는 말을 따를 사람이 많지 않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지닌 본성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선과 악, 자유의지에 접근한다. 이 방식은 기독교 진리를 지성과 이성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사역을 전하는 시도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지성과 이성을 통해 이해를 추구하는 접근방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많은 사

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책 <순전한 기독교>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겉으로 보이기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가 많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을 간구한다면 다시 한 번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를 갈망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죄성과 자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 그 변화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유승현 전도사
(양재 차세대)

불만한 공연 연극 '루터(Luther)'

“하나님께 불들리면 놀라운 도구가 된다”



평신도 없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을까? 만약 교회에 평신도가 없다면 예배, 사역, 선교가 마비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교회에서 평신도

들의 역할이 귀하고 중요하다. 그렇다면 평신도가 교회의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일까? 아마 루터(Luther)의 종교개혁 직후부터일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변모하게 된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다.

연극 '루터'는 종교개혁 이전에 묻혀 있던 평신도의 역할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면서 평신도 사역을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둔 작품이다. 영국의 비트족 극작가 존 오스본이 1961년에 쓴 원작 <루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연극 루터의 감독은 '빈방 있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 등을 연출한 크리스천 공연의 대가 최종률 교수(한동대학교)가 맡았다.

소심한 평신도 루터이야기

연극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내세우며 교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영웅적 인물 루터의 이야기가 아니다. 안타까움을 자아낼 만큼 소심하고, 지극히 나약한 인간 루터의 이야

기를 그렸다. 가장 초라한 인간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회심하고 변화된 과정을 담고 있다.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루터의 부모님과 그의 아내도 등장한다.

낮익은 출연 배우들이 많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성도들의 재능기부가 이어졌다. 한인수, 정옥, 심양홍, 정선일, 이경영, 최선자, 정영숙, 이일화, 김민경, 이지애, 김동석, 김정근, 송의동 등 감독, 연극인, 연기자, 방송인들이 총출동했다.

루터 역은 드라마 '제5공화국', '무신' 등에 출연했던 배우 정선일 집사가 맡았다. 정 집사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기독교 공연에 출연했다. '베드로', '주기철 목사', '장기려 박사', '본 회퍼' 등 훌륭한 신앙인의 선배들을 연기한 경력이 있다.

루터의 아버지 역은 드라마 '부모님 전상서' 등에 출연했던 57년차 원로배우 정옥 장로가 맡았다. 정 장로는 "60년 전에 처음 성극을 했는데 60년 만에 성극으로 돌아와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성도들의 신앙에 새로운 계기

를 만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할 것"이라고 출연소감을 밝혔다.

루터의 어머니 역은 드라마 '김약국의 딸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등에 출연했던 배우 정영숙 권사가, 루터의 아내 역은 배우 김민경 집사와 이일화 집사가 맡았다.

이 연극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 쓸모없지만 하나님께 불들린 인간은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회개와 개혁은 평신도들로부터 시작한다. 연극 루터를 보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연극 루터는 2월 9일까지 노량진 CTS 아트홀에서 볼 수 있다.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30분, 7시 30분, 4일(주일), 6일(화) 오후 3시 30분에 막 오른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예매: 02-571-1111 갓 피플
문의: 02-756-0286

건강한 신체 행복한 생활 - 척추건강 1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성장기 아이가 몸이 다 자라기도 전에 굽었다.”

“업무 효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사소한 집안 일만 해도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다.”

이 모든 문제가 자세 때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자세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디스크만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척추는 건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른 자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척추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

바른 자세란 척추의 본래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몸의 척추는 날개의 뼈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반면 휘거나 틀어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척추의 본래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자세를 취할 경우 처음에는 근육통 정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척추가 휘거나 틀어지면서 목디스크나 허리디스크를 유발하기도 한다. 때문에 바른 자세야말로 척추건강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추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야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바른 자세는 척추건강은 물론 삶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골격이 형성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은 더욱 그렇다. 척추를 곧게 유지해줘야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안

아주거나 엎어서 키우면 안 된다. 아이의 골반과 다리가 틀어질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아이의 목과 등이 구부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장기에 척추가 굽거나 틀어지면 타고난 키만큼 성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체형이 균형을 잃으면서 몸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뿐만이 아니다. 척추가 곧지 못하면 혈관도 구부러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집중력 저하는 학습능률 저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잘못된 자세는 성인이 된 이후에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 척추의 노화가 시작되는 30~40대가 되면 요통으로 고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사소한 보이는 자세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과 균형 잡힌 몸매는 물론 학습능률과 업무효율, 사회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곧지 못한 척추는 본격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연령대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근력과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더 구부정한 몸매로 변해가고, 퇴행성 척추질환이 진행되면서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도 불편해진다. 허리가 굽고 통증으로 움직임을 불편하다면 그보다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바른 자세는 척추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세만 바로 세우고 생활해도 곧고 튼튼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다. 자신감 있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아진다. 건강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꿈꾼다면 척추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내 몸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나쁜 자세를 바로잡고, 불균형한 체형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척추의 형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칭만 규칙적으로 해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척추는 중력을 견디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면서 몸의 중심을 잡기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정렬돼 있다. 목뼈는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C자형 곡선으로, 목 아래부터 허리까지는 S자형 곡선으로 정렬돼 있다. 이 뼈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개의 뼈가 블록처럼 쌓여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뼈와 뼈 사이에는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디스크 속에는 젤리 형태의 수핵이 들어있어 완충작용을 한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 수핵의 수분이 줄어 들고 겉게 변하면서 탄성이 떨어지는데 디스크에 지속적인 충격을 가하면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 바로 '바르지 못한 자세'이다. 디스크

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모양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상체를 벌떡 일으키는 습관은 자칫 목과 허리를 삐끗하게 할 위험이 높다. 잠자는 동안에 몸의 유연성이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잤다면 근육도 경직되어 있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팔을 위로 뻗어 올리고, 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 기지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기지개를 켜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비틀어주면 더욱 좋다.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난 다음 무릎을 세워 옆으로 돌아누워서 팔꿈치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켜야 척추에 부담을 덜 준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새벽형 크리스천들에게 전문가로서 꼭 권면드리고 싶다. 잠을 잔 그 자리에서 머리와 목을 꼳꼳이 들면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팔과 다리를 하늘 높이, 위 아래로 기지개를 하면서 몸을 깨우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기지개를 하면서 활기차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길 바란다.



이동연 순장
(서초D공동체, 참포도나무병원장)



2018 목회사관학교에서 이정선 사모가 강의하고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축복의 통로로

목회사관학교 ... 영적연합과 치유와 회복의 장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겠습니다!”

2018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한 온누리교회 목회자 340여 명이 한소리로 다짐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는 내적치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연합을 도모하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로 거듭나는 치유와 회복의 장이었다.

2018 목회사관학교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원주 한솔 오크밸리에서 개최됐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를 주제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이정선 사모가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목회자가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없으면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지 못한다”면서 “날마다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비추며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사모는 ‘나는 누구인가?’, ‘내적치유란 무엇인가?’, ‘방어기

제와 세상웃’, ‘십자가에서의 내면의 치유1, 2’, ‘영적전쟁’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목회자들이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하도록 도왔다.

박신웅 목사(얼바인 온누리교회)는 “빵 장수가 빵을 먹지 않는 것처럼 그동안 분주하고 사역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건강한 목회자로 거듭난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제4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참가자 모집

일대일 제자양육 3회 이상, 외국어 능통한 성도

일대일사역팀에서 ‘일대일로 세계로’의 비전을 이뤄나갈 일대일 사역자를 찾는다. ‘제4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가 3월 8일 개강한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에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3회 이상,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일대일 제자양육이 가능한 성도가 참여할 수 있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 강의와 실습’, ‘언어

권별 교회사와 문화’, ‘언어권별 예배 참석과 아웃리치’ 등의 훈련을 받는다. 영어는 매주 화요일 도곡교 육관, 중국어는 매주 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일본어는 매주 목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오후 7시 30분에서 시작한다.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영어 010-9930-7762

일본어 010-3287-4511

중국어 010-2658-2955

남양주 탈북민·다문화 예배 신설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한 하나예배’를 신설했다. 이 예배에는 경기 북부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이 출석하고 있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4층 온유희에서 드린다.

행복한 하나예배에서는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을 섬겨 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예배 자막, 음향, 반주, 차세대 교사, 여성멘토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자가 필요하다.

문의: 010-6643-9933

온누리M미션, 한국어 수업 워크숍 개최

남양주 온누리교회 온누리M미션에서 한국어 수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2월 10일과 3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남양주 온누리교회 5층 소망홀에서 진행된다.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성도

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강사는 명현숙 성도(브릿지33+공동체, 경희대 한국어학당)이다. 참가신청은 문자메시지(이름과 소속공동체)로 하면 된다.

문의: 010-3937-3927

2018년 봄 평양남노회 목사후보생 고시 공고

일시: 3월 27일(화)오후 1시

장소: 방주교회(02-586-9191)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구비서류

첫 응시자: 청원서, 이력서(사진첨부),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확인서, 당회장추천서, 주민등록등본(각 1부), 세례확인서(교회에서 발급)

※ 당회장추천서

목회행정실에 비치된 증명서발급신청서 확인란에 담당목사의 서명을 받은 이후 서빙고 목회행정실로 오셔서 증명서 발급 담당간사에게 추천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세례확인서

타 교회 세례자라도 현실적으로 세례 받은 교회에서 발급이 불가능하신 분은 교회에서 발급합니다(온누리교회 등록교인에 한함)

재 응시자(유효기간 3년): 청원서(상단기록: 불합격날짜, 재시 or 삼시), 이력서(사진첨부) 각 1부

신학생계속청원

신학생계속청원서 1부(장신대 재학 중인 파트전도사 해당, 3학년 제외)

전도사고시 준비서류

청원서, 이력서, 당회장추천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세례교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시험과목: 구약, 신약,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정치, 면접

제출처: 목회행정실(서빙고) 김경렬 간사 (02-3215-3234)

마감: 2월 23일(금) 오후 5시까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18기 선착순 모집

118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 장소는 1, 2, 4주차 Acts29비전빌리지, 3주차 예베셀교회 안성 수양관이다.

118기 하가훈에서는 피플퍼즐, 가계도 그리기, 부부대화, 가정경제, 아버지의 영성 등을 주제로 성경적인 가정을 만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월 16일까지 24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부부 당 30만원이다. 자녀를 동반하면 1인 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이번 하가훈은 서빙고, 양재, 대전, 수원, 양지 캠퍼스 연합으로 개최된다.

문의: 010-5471-0854

010-2022-2827

새사람사역팀 팀원 모집

새사람사역팀에서 팀원을 모집한다. 분야는 예배 섬김, 일대일 제자양육, 찬양 인도 등이다. 새사람사역팀은 소망교도소 등 서울 근교 10개 교소도에서 재소자들을 섬기고 있다. 문의: 010-3625-0266

예통비전 세미나 3기 모집

예통비전 세미나에서 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예통비전 세미나 3기는 3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회비는 2만원이다.

선착순 70명을 모집한다. 예통비전 세미나는 성경통독 세미나이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90일 동안 성경을 완독한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10-9041-5538

월요어노인팅집회 10주년 기념집회

2월 12일 월요일 오후 7시

서빙고 월요어노인팅집회가 2월 12일(월) 오후 7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10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교는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한다.

월요어노인팅집회는 2008년에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치유집회다.

서빙고 나눔장터 봉사자 및 헌물 모집

사회선교부 소속 서빙고 나눔장터에서 봉사자 및 헌물을 모집하고 있다. 나눔장터 봉사자는 판매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10시 30분, 오후 1시 30분~4시까지 섬기면 된다.

헌물도 모집한다. 의류, 식기, 책

등 깨끗한 물건을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나눔장터에 가져다주면 된다.

헌물 판매 수익금은 전액 사회선교에 사용된다.

문의: 010-8752-2222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수료 간증



/ 김홍권 성도(백주년기념교회)

모든 관계의 시작 '부부'

아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주관하는 부부코칭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반갑지 않았다. 거기다 금쪽같은 토요일을 무려 8주 동안 비워야 한다는 것도 탐탁지 않았다. 그래도 아내가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은 갈등이 심한 부부들이나 듣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아내가 이 프로그램을 방자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실제로 도움이 되기는 하는지도 의문이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가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잘 정리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복잡한 생각과 마음으로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에 임했는데 순식간에 8주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만큼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부부관계 진단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상태를 더 잘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격과 심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었고, 아내가 무엇을 선호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원가족으로부터 이어진 무의식적인 유산에 대

한 이해는 나의 잠재의식을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과 성경적 부부관에 대한 강의로 참으로 유익했다. 무엇보다 코치부부와 함께 마음을 열고 대화했던 것이 인상 깊었다. 전문가의 지식 전수나 선배로서의 가르침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상생하는 나눔이었다. 코치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면서 우리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갈등 원인을 배우자의 성격이나 특성 탓으로 속단해 버리거나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겼다.

부부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나는 것들이 참으로 귀하다. 여기서 배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 잘 정리한다면 우리 부부의 문제들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부부 커플링으로 우리 부부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일정: 3월 10일~4월 28일(매주 토요일)
장소: 서빙고 비전홀 오후 3시
문의: 010-9041-5538

예수제자학교(JDS) 수료 간증



/ 천소영 성도(JDS 서빙고 주간반 수료)

그 사랑 덕분에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겪으면서 너무 힘들 때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예수제자학교에 다녀보라고 권유했다. 예수제자학교 면접을 보는데 황설수설하면서 울기만 했다. 너무 힘들어서 왔다는 말만 했던 것 같다.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친 나에게 가정의 위기까지 더해져 너무 힘들었다. 혹독한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싶었다.

예수제자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 같았다.

예수제자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귀가 멍멍이 있으면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그 누구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었다. 그런 나를 간사님들이 한결같이 안아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간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냉혹한 추위에 떨고 있던 내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것도 간사님들의 보살핌 덕분이었다. 이제 그만 안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나를 많이 안아주신 간사님들 덕분에 닫혀 있던 나의 관계회로가 열렸다.

20년 동안 하다 말다를 반복하던 큐티도 이제 습관이 됐다. 예수제자학교 훈련 프로그램에 맞춰 큐티를 꾸준히 하다 보니 습관이 됐다.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때로는 나의 허물을 보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일깨워주셨다.

가장 잊지 못하는 강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사실 그때 내 감정이 몹시 우울했었다. 처음으로 '오늘 예수제자학교에 가지 말까?'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교회로 향했는데 하나님은 그날 나를 더욱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고 강해서 울기만 했다. 그런 나를 간사님이 또 안아주셨다.

아웃리치도 큰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제자학교 모든 시간이 귀했다. 큰 도움이 되었다. 힘든 과정조차 은혜였다.

예수제자학교 모집
문의: 02-3215-3625, 3533

농어촌 미자립교회 서울 탐방기



/ 강수정 집사(성은교회)

꿈같은 시간

아동이 채가시지도 않은 이른 시각임에도 각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배움을 해주셨다. 그 모습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나는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라북도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의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을 다녀왔다. 첫 일정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방문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습의 장이 되어서 참으로 유익했다. 그 다음에는 전쟁기념관에 들렀다가 온누리교회에서 창조과학 강의를 들었다. 강의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았다. 이른 시간 출발해서 피곤했을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졸지 않고 재미있게 참여했다.

둘째 날에는 롯데월드에 갔다. 오전 9시 30분이 개장시간인데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다. 그만큼 기대가 컸다. 롯데월드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른다. 마음껏 즐기는 아이들이 너무 고맙고 기뻐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아이들이 처음에는 각자 핸드폰만 쳐다보더니 나중에는 공동체 놀이를 하면서 하나가 되었다.

주일에는 온누리교회 차세대들과 함께 예

배를 드렸다.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동안 어른들은 농어촌선교팀의 안내에 따라 온누리교회를 둘러봤다. 사실 온누리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많이 배웠다. 특히 선교와 양육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

온누리교회 본당에는 화려한 강대상, 십자가, 의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30분 전에 도착해 있는 성도들을 보고도 놀랐다. 성가대원들이 악보 없이도 찬양하는 모습도 놀라웠다.

그날 우리는 특별대우를 받았다.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 꼬불꼬불 줄을 서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제치고 지정석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죄송스러웠다. 오후에는 1층 홍보관에 함께 모여 사진을 찍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온누리교회 덕분에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2박3일 일정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다. 꿈같은 시간이었다.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GO' 참가 간증



/ 김효진 성도(허브공동체)

가슴이 뛰었다

이번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가장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회계MC로 섬기다보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보면 나는 매 순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 그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섬김을 스펙 쌓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었다. 보험들듯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겼으니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데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현실을 봤더니 불안했다. 나는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해결되는데도 불안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섬김의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번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나의 기도가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은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주님께서 하자고 하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했다. 우상처럼 여기던 욕심을 내려놓았다.

이번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았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마음도 사라졌다.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 마지막 날 FA 14기 면접을 앞둔 친구가 내게 "자신의 사역을 함께 섬겨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회계MC를 섬기고 있고, 다른 일도 많아서 어렵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친구의 부탁을 받자마자 "나를 떠올려 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했다. 이번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주님을 더욱 섬기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이다. 또 한 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서 가슴이 뛰었다.

기대감 없이 참석했던 대학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칼럼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

이승배 장로
(2000선교)

얼마 전 생명공학분야 교수인 친구가 기계공학자인 나에게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다. 머리가 인공지능이고 육체는 사람인 경우와 머리가 사람이고 육체가

로봇인 경우 어느 경우가 인간에 해당하는지가 그것이었다. 그 친구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유전적 특성의 후손을 만드는 전자가 더 인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와 분명히 다른 사회적 가치와 변화된 환경의 도전을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신의 이기적 선호를 사회적 가치로 만들기 위해 SNS에 “좋아요”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블록체인기술 발전으로 가상화폐 등의 또 다른 사회경제적 동기가 필요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네트워크 체인과 같은 물질세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주어진 제약조건 내에서 인간들에게 최적의 유익한 답을 찾아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난 받는 진리의 길은 학습할 수도, 찾아낼 수도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떠난 이들이 있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97개국 907명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이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안디옥교회의 파송선교사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로마의 수많은 동역자들과 조력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상

상할 수 없는 복음 전파와 교회개척을 이루었다.

온누리교회는 초기부터 공동체가 미전도종족을 입양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였을 뿐 아니라 기도와 물질, 선교현장에 함께 가는 것으로 선교사들을 적극 도와왔다. 또한 공동체 다락방마다 선교사들을 연결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동체들이 국내로 찾아온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연초 작정현금과 함께 바울의 뵤뵤,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모, 의사인 누가와 같이 선교재능기부를 시작했다.

한 성도님은 이태원에 카페를 하려고 준비해 온 가정집을 선교사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어느 신혼부부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한국에 방문한 선교사님들께 내어주고 싶다고 했다. 어떤 성도들은 안식년 선교사가 받는 홈투홈(Home to Home) 훈련 때 그들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빛을 나누는 학교’다. 현지와 한국에서 따돌림을 겪으면서 완전히 단려버린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현지에 찾아가 우리말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이 일에 헌신한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지만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마치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드러나지는 않으나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분들이다.

올해는 6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새롭게 재능기부에 동참한다. 작년에 이어 계속 섬기기로 작정하신 성도님이 400여 명이나 된다. ON펀지 제작 등 약 1,150명의 성도님들이 재능기부에 함께한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자신들의 시간과 전문성을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드리고 있다. 아직 아주 고르게 퍼져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 속에서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는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한다.

권사칼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현숙 권사
(서대문공동체)

30여 년 동안 쉽 없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심신이 너무 지쳐서 쉬고 있을 때 예통 비전 세미나에 참석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시간제약 때문에 교회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었다. 그런데 예통 비전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교회를 밟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 읽기에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예통 비전 세미나는 90일 동안 ‘성경 1독’이 목표이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해야 한다. 나는 90일 동안 가족들이 출근하고 없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나만의 공간인 식탁에서 성경을 읽었다. 오전 약속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그 시간을 못 지켰을 때에는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읽었다. 산책을 나갈 때에는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듣는 습관이 생겼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기쁨을 통독을 하면서 경험 하고 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만 앞섰지 제대로 읽지는 못했다. 말씀으로 명확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대충 살았다. 이번 세미나 기간에는 꾸준히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조명했다. 그러면서 읊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지내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보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통 비전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말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말씀 앞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고자하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차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화분엔 잡초가 자라기도 한다.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예쁜 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인 탐욕, 자랑, 교만을 뽑아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자연스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선택하게 된다.

예통 비전 세미나는 쉽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진정한 쉼을 얻게 하셨다. 지치고 힘든 내 영혼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셨다. 말씀읽기를 통해 설렘과 평안함, 무슨 일을 해도 넉넉히 감당할 새 힘을 얻고 있다. 사랑, 겸손, 섬김,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멋지게 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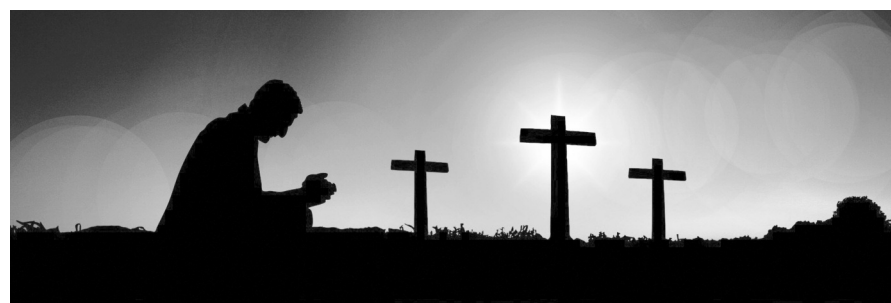
선교지에서 온 편지

양아브라함, 천사라 선교사
(동아시아 A국)

내 신앙의 원동력 중 하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다. 대학시절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벽기도, 성경공부, 교회봉사, 예배 등 모든 사역을 열심히 했다. 내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병이다. 나는 폐결핵, 기흉, 장출혈, 간질환, 일사병을 앓은 적이 있다. 한동안은 건강하게 지냈는데 2014년부터 간염을 앓게 되었다. 간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치료제를 먹고 있다. 열심히 살아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내게는 그 중 하나가 건강이다.

그동안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지난 3

년 동안 병이라는 귀부인과 지내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성과 지향적이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한다. 열심과 성실함이 부족하다고 다



른 이들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하나님께 성과를 인정받고 더 큰 상급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한다. 정제된 제자훈련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후원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했던 생각들도 회개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시고 고치셨음을 감사한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병이 치유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한 사람의 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소자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게 할 것이다. 지난 여름 A국에 찾아온 여호수아공동체와 양지 온누리교회에 감사 드린다. 여호수아공동체는 3박 4일 동안 축축하고 땀새나는 것을 참아가며 어린이 캠프를 섬겨주셨다. 캠프 시

간만 되면 정전이 되어서 준비해온 것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잘 견뎌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 그 덕분에 이곳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린이 부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A국 최초로 한 집안 사람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문화전도축제를 진행했다. 일종의 맞춤형전도집회였다.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알찬 시간이었다. 90여 명이 복음을 들었다. 벌써 몇몇은 교회와 연결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즈니스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다. 비즈니스 사역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대학청년공동체를 만들고, 재정적 기반을 다지고, 지역교회 개척과 A국 청년들의 해외사역에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대학생 훈련과 파송을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기도를 부탁한다.

범사에 감사

14 은누리신문

서빙고 O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은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 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연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승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은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은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은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CMN 라파티 넷째 주 봉사자 모집 내용: 외국인 무료진료 장소: 서빙고 상담실(지하1층) 일시: 매월 넷째 주 오후 4시~6시 모집: 의사, 치료의사, 치위생사 각 1명 문의: 박귀용 팀장(010-9990-2875) Acts29비전빌리지 간사채용 인원: 1명(선교사훈련소속) 업무: 서툼은행(주 5일 월~금) 자격: 1종 대형면허 소지자, 경력2~3년, 은누리교회 등록교인, 세례교인, 선교 헌신자 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본 교회양식), 건강검진1부, 심리검사1부 지원: kona@onnuri.org 문의: 031-331-8182 한뎃사역 지원자 모집 사역: 선교사 사역을 위한 전도용품 제작 시기: 3월 1일부터 시작 모집: 바느질(교육 가능) 기간: 2월 28일까지 문의: 010-4788-0560 김포M센터 교사 모집 모집: 어린이 예배, 한국어, 수학 교사 장소: 김포 양촌읍 양곡리 443 양곡 프라자 705호 문의: 민경윤 전도사(010-2997-4347)	양 재 O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절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을 받음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30 양재 JDS홀 문의: 장형식 총무(011-515-6174)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두란노서원 양재 및 서빙고지점 채용 공고 모집: 서점 매장 직원 마감: 2월 28일(수)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은누리 NGO 더멋진세상 해외 단기사역자 모집 지역: 더멋진세상 르완다 지부 업무 : 행정지원 (회계), 현지교회 주일학교 지원 지원: 2월 6일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이가일 PM(02-2271-2246) *게시판광고마감목요일오후4시
--	---	--	--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오대산솔숲교회 편

평창 지역교회들과 하나되어 올림픽을 섬기는 오대산솔숲교회
고향교회 패밀리가 성도들과 함께 올림픽 선교의 소망을 나눕니다.

방송: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MC: 박요한 전도사, 개그맨 이정규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